

V. 尖端 産業 動向

日,韓·中과 次世代 휴대전화 개발

일본은 次世代 휴대전화 개발 경쟁의 우위 확보를 위하여 한국 및 중국과의 제휴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

○ 2000년 실용화 계획

- 일본 郵政省은 세계 공동의 차세대 휴대전화 개발을 위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사업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
- 기존의 휴대전화 분야에서는 歐洲 方式에 밀리고 있으나, 「次世代」에서는 아시아 각국과 공동으로 세계에 通用되는 휴대전화 개발을 목표로 함
- 휴대전화는 NTT가 79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歐洲의 GSM 방식이 급속히 보급 확대되어, 일본의 PDC방식은 일본 국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
- 일본 정부는 次世代 휴대전화의 2000년 실용화를 목표로 97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

○ 세계 共通의 端末로 통화 가능

- 차세대 휴대전화는 공동의 주파수와 무선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端末로 통화가 가능하게 됨
- 기존의 휴대전화나 PHS는 각국이 서로 다른 주파수와 무선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통화가 제한적이었음

○ 韓·中 양국과 공동 개발

- 일본 정부는 韓·中 양국과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며, 최종적으로는 歐美 각국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전략
- 한국과는 관계 장관 협의에서 상호 협력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, 월드컵 공동 개최시 동일한 휴대전화 단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
- 중국과는 일본의 기존 기술을 개방함과 동시에 공동 연구의 방법을 탐색해 나갈 예정
- 차세대 휴대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, 歐洲 뿐이기 때문에 향후 3者間의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

(「朝日新聞」, 96. 12. 3)

急變하는 産業環境에서 되살아난 노키아(Nokia)社

노키아社는 시장 수요의 위축, 잘못된 부품 공급 체계, 시장예측의 오류 등으로 위기를 맞이함

○ 위기를 맞은 노키아

- 외부적 요인: 휴대폰 기기 시장의 침체
 - 휴대폰 수요의 위축과 수익률 하락
 - 정보통신·전자 업체들의 시장 참여로 인한 경쟁 격화
- 내부적인 요인: 부품 공급 관리와 마케팅 전략의 오류
 - 기존의 부품 공급 체계는 세계에 산재한 생산 기지에 충분한 양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단편적인 것이었음
 - ⇒ '95년 여름 칩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각종 부품의 재고가 누증됨
 - 北美 시장에서,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리라는 노키아의 예상이 빗나감. 이에 따라 지속된 아날로그 기기의 수요를 상실하고, 디지털 기기의 재고가 증가함

부품 공급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함

○ 노키아의 경영 혁신 전략

- "Commando Teams"을 구성하여 부품공급 체계 재편
 - 각 지역 책임자들로 하여금 부품 공급 업자와 납기와 관련한 재계약을 명령함
 - 칩 공급 주기는 12주에서 8주로 재계약
- 부품관리 시스템의 네트워크화
 -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매 담당자들이 부품 현황과 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實時間으로 이용토록 함

제품사이클을 대폭 축소시켰고, 3/4분기를 기점으로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시장에서 신뢰도도 회복함

○ 경영 혁신 성과

- 제품 사이클의 개선
 - 원재료(부품 포함) 공급주기는 80일에서 40일로 축소
 - 재고 회전율을 3배 증대시켜 재고는 35% 축소
- 수익성 개선
 - 96년 3/4 분기에 매출은 39% 증가했으며 1/4 분기에 6%였던 영업이익률은 13%로 상승
- 통신장비 시장에서 제품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

(BUSINESS WEEK, 1996. 12/2)